

지역 소식통

정읍시, '행복한 다문화 포용 도시' 사업 추진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정서 안정·진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 추진에 나섰다.

가족센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정서 안정·진로 취업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서 안정·진로 취업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만 7-18세)의 학업, 교우 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탐색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5월부터 연중 모집과 상담을 병행하며 편안한 상담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진로 탐색과 취업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력 강화를 돕는다.

한국어가 서툰 아동·청소년을 위해 필요시에는 상담 통역 지원사가 모국어 상담을 지원하며, 상담 이후에도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사후 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직업을 탐색해볼 수 있는 교육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가로수 병해충 방제 실시

고창군은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일부터 2주간 집중 병해충 방제에 들어간다.

이번 병해충 방제는 생활권과 가까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가로수와 보호수, 읍내 소공원을 대상으로 살충제와 영양제를 혼합하여 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이상 기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병해충의 발생시기가 빨라지고, 수목의 병해충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군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림 병해충예찰방제단 3명을 운영해 소나무재선충 및 기타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신정교 재가설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구간 2일부터 차량 통행 전환

정읍시가 신정마을 앞 신정교량 재가설을 위해 2일부터 신정교 대신 임시 가설 교량으로 차량 통행 전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 사업 일환으로 기존 왕복 2차선인 신정교를 철거하고, 차도와 인도가 포함된 왕복 4차선의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가설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위해 차량 우회용 임시 가설 교량을 설치했다.

임시 설치된 교량은 길이 24m, 폭 10.3m로 왕복 2차로와 인도 1.5m 규모의 강제 교량이다. 신정교와 차선 수는 동일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인도를 설치해 용산호 수변 데크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까지 고려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홍수위선보다 교량상판을 높게 설치했으며, 구조적인 안전성까지 검토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정읍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야 교통 유도 시설과 속도제한 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설치, 안전성과 시인성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가설 교량 이용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가설 공사 기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공사 기간 중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 사업은 수려한 자연관광 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이다. 국비 229억원을 투입해 신정교와 용산동, 쌍암동 일원 내장산과 내장산BC를 연결하는 시도 22호선 일부 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영상 간부회의 열고 지방선거 관련 '꼼꼼 업무' 당부

유진섭 시장, 각종 공모사업 대비 철저한 준비·방문객 맞이 주요 관광지 점검 주문

유진섭 시장은 2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6.1 지방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일정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유 시장은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며 "차질 없는 선거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업무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불편함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과 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선거권을 가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위



유진섭 시장은 2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6.1 지방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일정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해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복도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과 대응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정책 중심 소화행 공약 시리즈 '화제'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중심의 소화행 공약 시리즈를 잇 따라 발표해 연일 화제다. 특히 일부 예비후보들이 유력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권익현 예비후보는 특유의 특신과 성실함으로 지역



발전과 부안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소화행 공약 시리즈에 감성적으로 녹여내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권익현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6.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한번 더 권익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근까지 6차례 소화행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전부터 소화행 공약을 발표했으며 경선 과정은 물론 민주당 부안군수 후보로 확정된 후에도 소화행 공약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깨끗한 물린 선거의 표본이 되고 있다.

현재 권익현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소화행 공약을 6호까지 발표하면서 별다른 정책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타 후보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권익현 예비후보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부안군의 현실에 맞게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240만원(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 지원을 소화행 공약 1호로 발표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이 최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

"100년 안전고창 실현 주춧돌"

고창군,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3기 위촉식 진행

고창군이 최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은 재난위험요소 및 재난의 선제적 예방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순수한 자원 봉사 성격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됐다.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안전사고지대를 해소하고 재난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3기 민간예찰단은 2019년 위촉

된 2기가 종료됨에 따라 각 14개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위촉식 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예찰단의 운영 및 주요역할, 예찰분야 등 토의 및 교육진행을 했고 예찰단원들의 스마트폰에 안전신고앱을 설치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기도 했다.

위촉식 행사에서 이주철 고창군 부군수는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한 분 한 분이 100년 안전고창 실현의 주춧돌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유진섭 정읍시장이 2일 정읍시청에서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장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유 시장은 "4년 전의 무관한 일을 악의로 선거 목전에 증거도 없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제 불찰이며 시민들에게 진정 죄송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재판에서

진심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배제한 당의 결정은 제게 큰 시련을 주고 있다"며 "당의 결정 과정에서 사심은 없었는지, 당의 결정이 시민들의 납득을 얻을 만큼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시민들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김종택 부군수 5월 열린공감의 날 개최

부안군은 2일 군청 대강당에서 5월 열린공감의 날을 개최했다.

김종택 부군수는 5월은 본격적인 영농철로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부안군 공직자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는 선거 중립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에 임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으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안바실축제가 5일부터 31일까지 읍·오프라인 융합형 온택트 방식으로 시작됨에 따라 우리군 축제가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속 가능한 일상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종택 부군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수개월 동안 방역복을 입고 무더운 여름과 혹한의 추위에도 방역근무에 임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